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갈렘의 신앙 II

(여호수아 14:6 ~15)

이종윤 원로목사

### I. 뚜렷한 역사의식

유대인들에게 헤브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 묻힌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이다. 그곳은 가나안 땅 밭 끝에 붙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이다. 그곳에는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의 무덤이 있고 요셉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뼈를 가져다가 그곳에 묻어달라고 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혼이 깃든 그 땅을 새로운 유대 백성이 된 갈렘이 보기를 원했고 자기가 그 땅을 상속받고 싶어 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헤브론에 대한 정탐꾼들의 견해는 갈렘과 달랐다. 그곳엔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 살았다. 그 땅을 정탐한 이들은 한결같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참으로 좋은 곳이지만 정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보고를 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렘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고 했다.

“갈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민13:30).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열두 명 중 열 명인 다수의 보고를 따르기로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신앙을 저주하시어 40년 간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하고 모든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다. 4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정복된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 의해 분배하게 되었다. 갈렘의 심중엔 헤브론을 잇을 수가 없었다. 가나안을 생각 할 때마다 그는 정탐꾼으로 들어갔었고 살고 싶었던 헤브론에 대한 꿈이 살아났다는 것이다. 갈렘은 하나님께서 그 거인들도 물리쳐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은 자신들에게 주어진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갈렘은 정탐 보고를 마친 후 모세에게 헤브론을 포함한 그 언덕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다. 모세는 이에 동의했다.(수14:9) 이제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고 있을 때 갈렘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한다.(수14:12)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나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수14:12).

이것은 지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7년 간에 걸친 가나안 정복기간 동안 갈렘이 가졌던 비전이었다. 40년 광야생활 동안 갈렘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다.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반항,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다른 소리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변하는 바다의 물 속에 있는 바위덩이처럼, 구름과 폭풍과 태양의 변화 속에서 눈 덮힌 산봉우리처럼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신앙 영웅들의 일대기를 듣노라면 마치 자신이

위대한 신앙인이자 된 것처럼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신앙은 대리만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갈렘의 신앙을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겠다.

### II. 온전한 믿음

갈렘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다.

위대한 사람의 특성 중 하나는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다. 복잡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다. 그는 모든 것을 함께 얻는 방법을 모르는 자다. 이쪽저쪽을 재고 살피다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다.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 득실을 따지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위대하다는 이들은 단순하다고 해서 깊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 최선의 길을 택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단순성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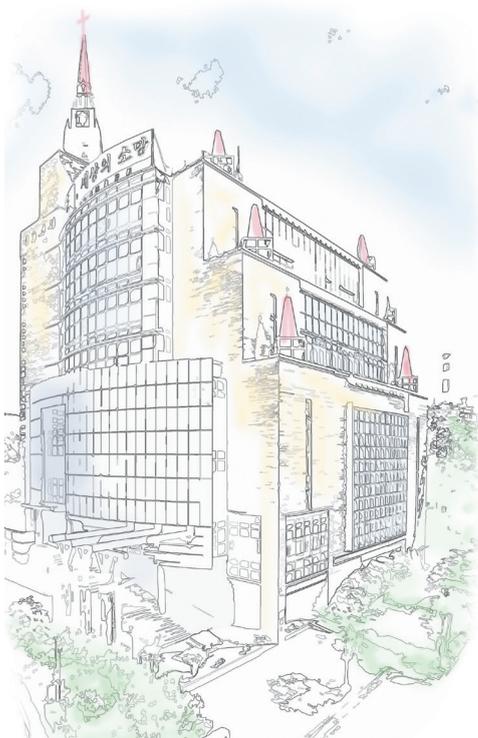
갈렘이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이다. 갈렘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 자기 전부를 던진 사람이다. 갈렘은 왜 하나님만 믿었을까? 그 대답은 단순하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시선을 고정 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의 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른 열 명의 보고와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해석했다. 그들에게 시각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곧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보다 거인들을 보았다. 거인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렘은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았다. 여호수아와 갈렘이 보기에 그 땅의 거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비교하여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민14:7-9).

열 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힘을 계산했다. 그러나 갈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다. 열명은 두려워 떨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렘은 마치 승리자처럼 보고했다. 거인만 보인 그들에게엔 하나님이 작게 보였지만 크신 하나님을 본 이들에게엔 거민들이 작게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려웠는가?

젓 먹는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 아이는 다른 것을 갖기 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실 줄 믿는 성도가 되자.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 추석

##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오는 월요일은 우리 교유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추석이다.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일이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의 문제이다. 조상숭배 제도는 12세기 중국의 주희가 만든 성리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성경적으로는 우상숭배요,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유교철학에서 온 외래문화의 유산이며, 철학적으로는 과거지향적인 순환적 시간관에 기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상에 대한 제사가 우리민족 교유의 미풍양속이라는 말은 오도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 바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 “감사하라”

예배 순서

인도 : 가족 중 어른

묵도	.....	다함께
성시	..... 시편 105편 1-3절	인도자
찬송	..... 589장	다함께
기도 (또는 사도신경)	.....	다함께
성경봉독	..... 신명기 16장 13-17절	인도자
메시지	..... “감사하라”	인도자
찬송	..... 429장	다함께
주기도	.....	다함께

## 신명기 16장 13-17절

13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17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 1.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주와 자연과 물과 공기와 태양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스펀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

### 2.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영어의 감사하다(thank)라는 말은 생각하다(think)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거리는 별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나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17절에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감사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여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여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생의 목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방황하며 허무하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15절에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 3.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가족과 일가친지들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하셨습니다.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은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만 아니라 날마다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8 사명자대회

#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소서

예왕식 집사 (2018 사명자대회 차장)

서울교회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7주전(50일)부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특별새벽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7년을 맞는 서울교회 사명자대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운동으로서 50일 동안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전도 대상자인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대회입니다.

금년에도 10월 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서울교회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므로 사명자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어린이로부터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사명자대회 기간에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번 사명자 대회를 통하여 바라옵기는 주님의 몸된 서울교회가 지난 수년간 사단마귀로 인하여 거짓목사와 거짓성도들로부터 무너진 서울교회를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만에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중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울교회를 재건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리고 영광돌리는 교회로 다시한번 새롭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원로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역자와 당회원, 스테반회, 권사회, 서바협과 사서함의 임원단과 회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짓목사로 인하여 난생처음 경찰서로 법원으로 검찰

청으로 불려가고 있는 죄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아뢰고 심판주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은혜받기를 소원하며, 더 이상 지체치 마시고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50일간 전 교인의 자율기도로 진행합니다. 나눠드리는 자율기도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하루 24시간중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하루 또는 일주일중 한시간 이상을 선택하셔서 작성해주시고 스스로 작성한 기도시간에 맞추어 각자 개인의 기도처소에서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고 가족단위, 교구와 다락방단위, 또는 부서별, 교회학교별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어도 매우 의미있는 사명자 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년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경통독표에 맞추어서 신약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명자로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눠드리는 6가지 공동기도제목이 적혀있는 기도카드를 소지하시고 간절하고도 뜨거운 마음으로 머리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쓰임받을 서울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고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더불어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할 조국을 위해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2018년 사명자대회 기간중 특별새벽기도회가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05시부터 0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 서울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높으신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 기도 제목

**첫째 :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신 하나님께 감사,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둘째 : 은혜의 복음증거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셋째 : 우리에게 주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주신 성령님.**

복음에 빛난 자로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제 나 이만큼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성삼위 하나님께 바치게 하소서.

**넷째 : 자비와 공의의 보혜사 성령님**

서울교회가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소서.

**다섯째 : 엄위하신 심판 주 하나님**

주님 발앞에 엎드려 비옵나니 흰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날, 어린양의 피를 이마에 바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판단하사,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성도들이 찬양케 하소서.

**여섯째 :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서울교회에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찾아 보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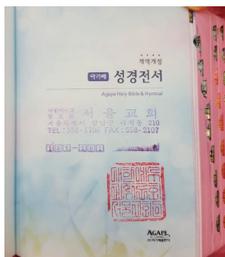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유·초등부 달달 말씀 암송대회

교육 1국 유·초등부(유년부 부장 : 장윤기 집사, 초등부 부장 : 김혜연 집사)는 5월~8월 어린이들이 성경 암송대회인 『달달 말씀 암송대회』를 열어 시상식을 가졌다. 『달달 말씀 암송대회』는 서울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한다. 『달달 말씀 암송대회』는 4개월마다 개최하여 시상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학년: 한세아 이주호 유하연 김수아 윤서진
- 2학년: 오선아
- 3학년: 노윤 임하람
- 4학년: 장유정
- 6학년: 이인애



▲ 5~8월 『달달 말씀 암송대회』 수상한 어린이들

▶ 부상으로 받은 성경책

##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광민 정복순 박분옥 박한옥 장호림 박춘자 문분순 영·유아부 김영선·권택숙 전용순 최현인 김형민 권사회 오정수 이홍숙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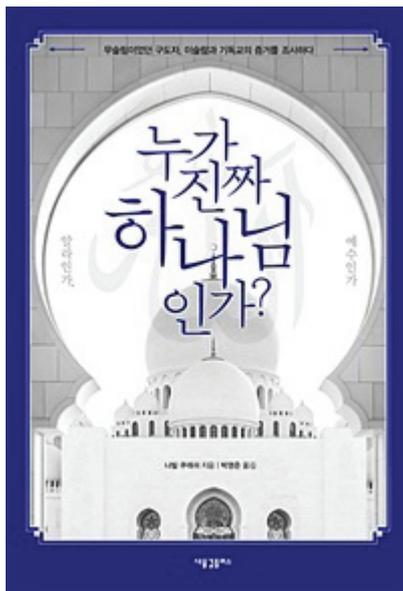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마음의 좋은 양식이라면 크리스천으로서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반 기독교 문화(anti christian culture)로 가득찬 세상의 위협에 제대로 반응하고 믿음을 굳건하며 견고하게 떠받칠 토대를 쌓는 일이다.



한권의 책

## "복종"을 떠나 "순종"의 길로

안승민 집사(청년부)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크리스천 지성은 바로 세상의 반문화에 맞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연마하고 올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분별력있고 균형있게 바라보는 일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책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알라인가? 예수인가?"는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의 속편격이다.

첫번째 책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가 자신이 개종한 이유의 여정에 관한 감동스런 일대기라면 이번에 나온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는 자신이 믿었던 이슬람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준다.

파키스탄 출신의 이 기독교 변증론자가 보여주는 감동스럽고 따듯하지만 치밀하고 논리적인 문체들은 존 허와 같은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산에 오

기독교 신앙이 옳은지를 보여주는 변증의 확실한 기초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Credo ut Intelligam: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르는 길은 많은 길이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가치한 얘기인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실재다. 그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원, 존재, 의미, 도덕, 과학, 신조, 소망 등 모든 것이 설명된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있다.

파키스탄출신의 저자 나빌 쿠레쉬는 이제 "복종"을 뜻하는 이슬람에서 떠나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험악한 길이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마 7: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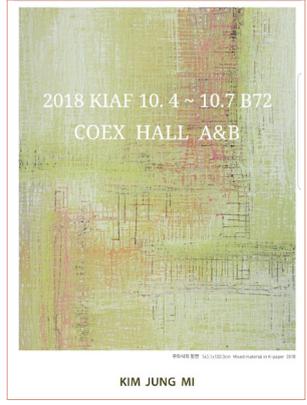
복종은 강압을 의미하는 강제성을 띠지만 순종은 그 자체로 언제나 자발적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 짧은 생애를 마친 이 놀라운 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라!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역사적이며 논리적인 통일성의 바탕 위에 굳건히 서있음을 느끼게 될때 기독교 지성은 왜



### 동정



■ 전시회 : 13교구 김정미 권사  
10월 4일(목) 코엑스 A, B 홀

■ 금주의 식사 : 소불고기  
윤봉준 장로 김명화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9월 23일	주일	미 1-7		시 34-40	
9월 24일	월	나 1-3		시 41-50	
9월 25일	화	합 1-3		시 51-65	
9월 26일	수	습 1-3, 학 1-2		시 66-73	
9월 27일	목	속 1-7		시 74-80	
9월 28일	금	속 8-14		시 81-91	
9월 29일	토	말 1-4		시 92-104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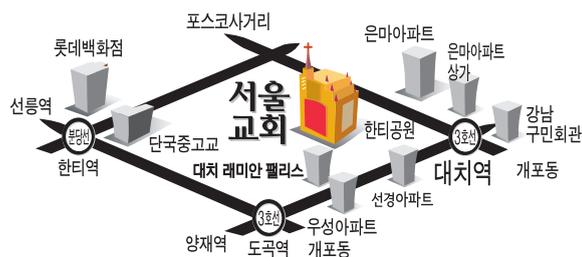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2.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여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스려 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